

# 최근 금융보험업 노동시장의 동향과 특징

남재량\*

## I. 서론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상당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보험업)<sup>1)</sup> 노동시장의 고용 및 근로조건 현황과 특징들을 정리해 본다. 개별 기업이나 대표 업종들의 사례와는 별도로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을 종합한 산업 전체에 관한 고찰은 당해 업종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이다.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만나 균형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균형 고용량과 임금수준이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보험업의 고용과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기로 한다.

본고는 먼저 금융보험업의 고용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최근 금융보험업 고용 규모 변화를 월별로 알아봄으로써 올해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용조정 정도를 파악한다. 아울러 금융보험업 취업자의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 금융보험업이 다른 산업 부문과 어떤 구분된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성,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별 고용분포 등은 해당 산업의 특징들을 알려줄 것이다.

고용의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질적인 측면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경제와 노동시장이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최근 10~20년간에는 과거보다 훨씬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용의 질은 전통적으로 종사상의 지위를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의 관심사는 근로의 형태, 즉 비정규 근로 여부에 집중되어 왔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보험업 고용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채용이 현저히 늘어났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금융보험업에서 근로의 형태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mam@kli.re.kr).

1)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이 이 산업에 포함된다.

는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며 과연 다른 산업들과 구분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로의 형태는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어떤 형태의 비정규 근로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반면, 다른 형태의 비정규 근로는 정규직 못지않은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본고는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의 측면에서 금융보험업의 근로조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금융보험업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기로 한다.

## II. 금융보험업 고용 현황

논의를 진전시키기에 앞서 분석에 사용될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용 통계를 산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이며 그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사용하면 다양한 근로형태와 근로조건들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되는 표와 분석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상조사와 근로형태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1. 취업자 수와 비중

먼저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취업자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표 1>에서 보듯이 금융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수는 2013년에 864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금융보험업의 고용비중은 3.4% 내외에서 매우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7월에도 금융보험업 고용 규모는 850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부표 1 참조).

금융보험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비중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량의 변동도 그리 크지 않다. 이는 <표 2>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금융보험업의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당시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수는 55천 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감소(71천 명 감소)의 77.5%에 해당한다.

〈표 1〉 산업별 고용 규모

(단위: 천 명, %)

	전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전기·운수·통 신·금융업	금융보험업
2004	22,557	1,824	4,192	16,542	2,551	737 (3.3)
2005	22,856	1,813	4,146	16,897	2,619	745 (3.3)
2006	23,151	1,781	4,073	17,298	2,705	786 (3.4)
2007	23,433	1,723	4,031	17,679	2,773	806 (3.4)
2008	23,577	1,686	3,985	17,906	2,786	821 (3.5)
2009	23,506	1,648	3,859	17,998	2,761	766 (3.3)
2010	23,829	1,566	4,049	18,214	2,834	808 (3.4)
2011	24,244	1,542	4,108	18,595	2,956	846 (3.5)
2012	24,681	1,528	4,120	19,033	2,997	842 (3.4)
2013	25,066	1,520	4,200	19,347	3,059	864 (3.4)

〈표 2〉 산업별 고용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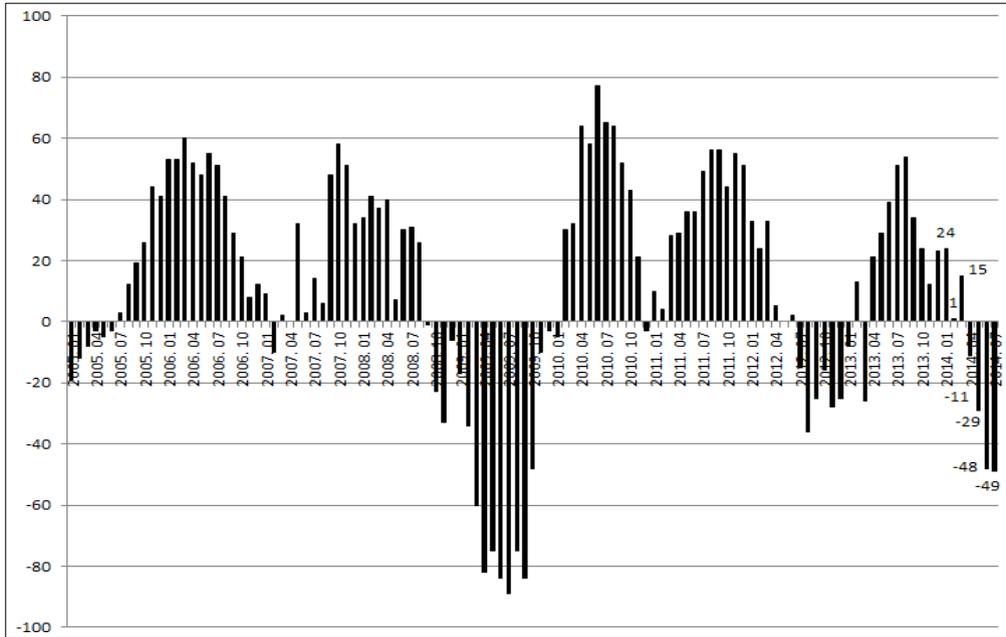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D~U)	전기·운수·통 신·금융업 (D, H, J, K)	금융보험업 (K)
2005	299	-11	-46	355	68	8 ( 2.7)
2006	295	-32	-73	401	86	41 (13.9)
2007	282	-58	-42	381	68	20 ( 7.1)
2008	144	-37	-46	227	13	15 (10.4)
2009	-71	-38	-126	92	-25	-55 (77.5)
2010	323	-82	190	216	73	42 (13.0)
2011	415	-24	59	381	122	38 ( 9.2)
2012	437	-14	12	438	41	-4 (-0.9)
2013	385	-8	80	314	62	22 ( 5.7)

연도별 취업자 수 추이와 별도로 최근의 금융보험업 고용동향을 월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은 2005년 이후의 금융보험업 월별 취업자 수 추이를 도시한 것이다. 고찰기간 동안 금융보험업은 세 번의 고용감소 시기를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2012년 하반기에 이어 2014년 4월부터 다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14.4월에는 11천 명 감소하는 데에 그쳤으나, 5월 29천 명, 6월과 7월에는 각각 48천 명과 49천 명이 감소하여 4~7월 기간 동안 137천 명이나 줄어들었고 2014년 1~7월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97천 명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금융보험업의 월별 고용증감

(단위: 천 명)



## 2. 성, 연령, 학력별 취업자 분포

이제 금융보험업의 성, 연령, 학력별 취업자 분포를 다른 산업과 비교하며 살펴보기로 하자. <표 3>은 금융보험업 취업자의 성별 분포를 취업자 전체의 성별 분포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산업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여성 취업자 비율은 41.9%에 불과하며 남성 비중이 58.1%로서 남성이 여성을 크게 앞서고 있다.<sup>2)</sup>

반면 금융보험업 취업자에 한정하여 보면 여성 비중이 오히려 더 높다. 2014년 금융보험업 여성 비중은 51.7%로서 남성 비중 48.3%보다 더 크다.<sup>3)</sup> 이는 금융보험업을 다른 산업들과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큰 폭의 고용조정을 초래하였는데, 여성 취업자 감소폭이 남성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커서 이 시기의 남녀 구성비는 역전되었다. 2009년과 2010년 여성 비중은 각각 49.8%와 48.4%로 하락했다.

2) 취업자 전체와 금융보험업의 실제 성별 근로자 수는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3) 표에 제시된 수치는 2014년의 경우 1~7월 평균이며 다른 연도의 경우 연평균이다. <부표 2>에서 보듯이 1~7월 평균과 연평균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3〉 취업자의 성별 분포

(단위 : %)

	취업자 전체			금융보험업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004	58.5	41.5	100.0	49.3	50.7	100.0
2005	58.3	41.7	100.0	49.5	50.5	100.0
2006	58.1	41.9	100.0	48.5	51.5	100.0
2007	58.1	41.9	100.0	48.0	52.0	100.0
2008	58.1	41.9	100.0	49.6	50.4	100.0
2009	58.4	41.6	100.0	50.2	49.8	100.0
2010	58.4	41.6	100.0	51.6	48.4	100.0
2011	58.4	41.6	100.0	49.8	50.2	100.0
2012	58.3	41.7	100.0	47.9	52.1	100.0
2013	58.1	41.9	100.0	48.7	51.3	100.0
2014(1~7)	58.1	41.9	100.0	48.3	51.7	100.0

이제 금융보험업 취업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자. <표 4>와 <표 5>를 비교하여 보면 금융보험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고 고령자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에도 금융보험업은 30대와 40대의 비중이 각각 30%를 넘는 반면, 50대와 60대, 특히 60대의 비중은 매우 낮다. 아울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30대의 비중은 20대와 더불어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대의 비중은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젊은이가 많은 금융보험업에서도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4〉 취업자 전체의 연령 분포

(단위 :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2004	1.1	19.2	27.4	27.5	14.8	10.0	100.0
2005	1.1	18.4	26.8	27.6	15.7	10.4	100.0
2006	0.9	17.5	26.5	27.7	16.6	10.8	100.0
2007	0.9	17.0	25.8	27.7	17.5	11.2	100.0
2008	0.8	16.5	25.5	27.8	18.2	11.2	100.0
2009	0.8	16.1	24.8	27.8	19.1	11.4	100.0
2010	0.9	15.6	24.5	27.5	20.1	11.5	100.0
2011	0.9	15.1	23.9	27.3	21.0	11.9	100.0
2012	0.9	14.6	23.3	26.8	21.7	12.6	100.0
2013	0.9	14.2	22.9	26.5	22.4	13.1	100.0
2014(1~7)	1.0	14.2	22.4	26.2	22.8	13.4	100.0

〈표 5〉 금융보험업의 연령 분포

(단위 :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2004	0.5	25.4	37.6	26.3	8.2	2.1	100.0
2005	0.3	23.2	36.5	28.2	9.2	2.6	100.0
2006	0.2	21.8	36.5	29.0	10.1	2.5	100.0
2007	0.1	21.0	37.1	29.3	10.5	2.0	100.0
2008	0.1	21.3	35.7	30.6	10.1	2.2	100.0
2009	0.1	21.2	35.4	29.5	11.5	2.2	100.0
2010	0.2	20.3	33.8	30.6	12.7	2.4	100.0
2011	0.1	18.9	33.5	30.9	14.0	2.5	100.0
2012	0.2	17.6	32.8	32.5	14.1	2.8	100.0
2013	0.4	15.4	33.7	31.2	15.9	3.4	100.0
2014(1~7)	0.5	15.5	31.6	32.2	16.5	3.7	100.0

이제 금융보험업 취업자의 학력분포를 전산업 취업자와 비교하여 보자. <표 6>과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대졸이상의 비중은 2014년에 50.2%로 절반을 넘고 있는 반면, 중졸이하자의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고졸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표 6〉 취업자 전체의 학력 분포

(단위 :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2004	25.6	43.2	9.5	21.7	100.0
2005	24.8	42.8	10.0	22.4	100.0
2006	24.1	42.2	10.4	23.3	100.0
2007	23.2	41.7	11.0	24.0	100.0
2008	22.3	40.9	11.6	25.2	100.0
2009	21.5	40.4	12.0	26.2	100.0
2010	20.7	40.4	12.2	26.7	100.0
2011	20.2	39.8	12.7	27.4	100.0
2012	19.6	39.4	13.4	27.6	100.0
2013	18.6	39.2	13.6	28.5	100.0
2014(1~7)	17.5	39.4	13.4	29.7	100.0

〈표 7〉 금융보험업의 학력 분포

(단위 :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체
2004	5.6	41.2	13.2	40.0	100.0
2005	4.8	39.2	14.2	41.8	100.0
2006	3.9	38.6	16.4	41.0	100.0
2007	3.5	37.1	16.9	42.4	100.0
2008	3.0	35.6	14.7	46.7	100.0
2009	3.3	32.0	15.0	49.8	100.0
2010	3.4	31.7	14.7	50.2	100.0
2011	2.9	33.4	14.7	49.0	100.0
2012	2.5	33.4	15.3	48.8	100.0
2013	2.5	31.9	14.7	50.8	100.0
2014(1~7)	2.7	32.2	14.9	50.2	100.0

종사상의 지위를 보더라도 금융보험업은 다른 산업들과 크게 구별된다. <표 8>과 <표 9>에서 보듯이 최근 금융보험업의 상용직 비중은 60%를 넘는다. 그리하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업자 전체의 경우와 크게 구분된다. 임시직의 비중도 월등하게 높아 이 둘을 합친 상시직(상용직+임시직)이 금융보험업의 9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의 종사상 지위들의 비중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 즉 금융보험업은 종사상의 지위에서 다른 업종들에 비해 매우 견실한 편이다.

〈표 8〉 취업자 전체의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2004	33.8	22.5	9.7	7.4	19.6	6.9	100.0
2005	34.6	22.1	9.7	7.3	19.7	6.6	100.0
2006	35.4	22.2	9.5	7.0	19.4	6.3	100.0
2007	36.8	22.1	9.3	6.7	19.1	6.0	100.0
2008	38.2	21.5	9.0	6.5	18.8	5.9	100.0
2009	39.9	21.7	8.4	6.5	17.8	5.7	100.0
2010	42.3	21.3	7.6	6.3	17.2	5.3	100.0
2011	44.0	20.6	7.2	6.2	16.9	5.2	100.0
2012	45.0	20.2	6.6	6.3	16.9	5.1	100.0
2013	46.7	19.5	6.3	6.0	16.5	4.9	100.0
2014(1~7)	47.5	19.6	6.0	6.0	16.1	4.7	100.0

〈표 9〉 금융보험업의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2004	61.1	31.3	0.9	1.7	4.8	0.1	100.0
2005	59.2	33.3	1.0	1.8	4.7	0.1	100.0
2006	56.4	36.1	0.7	1.6	5.1	0.1	100.0
2007	55.3	37.5	0.7	1.2	5.1	0.2	100.0
2008	58.0	35.9	0.8	1.2	4.0	0.0	100.0
2009	60.7	34.9	0.6	1.0	2.6	0.1	100.0
2010	61.4	34.4	0.6	1.2	2.1	0.3	100.0
2011	61.4	34.5	0.2	1.3	2.2	0.4	100.0
2012	61.1	34.9	0.2	1.2	2.3	0.2	100.0
2013	62.4	33.8	0.3	1.3	2.0	0.1	100.0
2014(1~7)	61.5	34.3	0.4	0.9	2.8	0.1	100.0

### Ⅲ. 금융보험업의 근로형태

이제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임금근로자 전체를 놓고 보면 <표 10>에서 보듯이 정규직이 63~68% 정도를 차지하며 비정규직은 대체로 32~37%를 차지하고 있다.<sup>4)</sup>

임금근로자 전체로 보면,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한시 근로자의 비중 역시 높게 나타난다.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도 최근 30%를 넘고 있으며, 비전형 근로의 비중은 대체로 40%에 육박하는 경우들이 많다.<sup>5)</sup>

반면 금융보험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매우 높다. 심지어 비정규직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들도 있으며 2014년 3월에도 41.7%를 기록하고 있다. 비정규직 가운데 한시근로와 시간제의 비중이 낮은 반면 비전형근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비정규직 가운데 비전형근로의 비중이 2014년 3월에 무려 77.6%나 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표에서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은 이러한 근로형태에 속한다.

4) 각 근로형태별 근로자 수는 <부표 3>과 <부표 4>에 제시하였다.

5) 비정규직 구분은 세부 형태별로 배타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모두 더하면 100%를 넘게 된다.

〈표 10〉 임금근로자 전체의 근로형태별 분포

(단위 : %)

	임금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특수
2004. 8	100.0	63.0	37.0	66.7	46.2	19.9	36.1	13.2
2005. 8	100.0	63.4	36.6	65.9	49.8	19.0	34.8	11.5
2006. 8	100.0	64.5	35.5	66.5	49.9	20.8	35.4	11.3
2007. 8	100.0	64.1	35.9	62.2	44.4	21.1	38.7	11.1
2008. 8	100.0	66.2	33.8	60.4	43.4	22.6	39.2	10.9
2009. 8	100.0	65.1	34.9	60.9	48.9	24.8	39.7	11.1
2010. 8	100.0	66.7	33.3	57.7	43.9	28.5	40.3	10.4
2011. 8	100.0	65.8	34.2	57.4	44.5	28.4	40.5	10.2
2012. 8	100.0	66.7	33.3	57.6	45.9	30.9	38.7	9.2
2013. 8	100.0	67.4	32.6	57.7	46.4	31.7	37.2	9.2
2007. 3	100.0	63.3	36.7	63.1	45.3	21.3	38.9	11.1
2008. 3	100.0	64.8	35.2	57.6	40.7	23.1	41.3	10.7
2009. 3	100.0	66.6	33.4	59.2	47.6	24.5	40.3	11.8
2010. 3	100.0	66.9	33.1	58.2	43.5	27.7	39.6	10.7
2011. 3	100.0	66.2	33.8	58.4	42.7	26.5	40.0	10.0
2012. 3	100.0	66.7	33.3	58.4	44.0	29.3	38.9	10.1
2013. 3	100.0	67.7	32.3	58.1	45.2	30.7	38.5	9.7
2014. 3	100.0	67.9	32.1	57.5	43.8	32.4	36.4	9.3

주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의 합은 100.0이며, 한시,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특수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임.

〈표 11〉 금융보험업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분포

(단위 : %)

	임금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특수
2004. 8	100.0	56.0	44.0	46.5	33.8	6.0	59.5	58.5
2005. 8	100.0	53.5	46.5	42.0	36.3	4.4	62.0	61.2
2006. 8	100.0	48.5	51.5	43.8	33.4	6.0	59.1	58.4
2007. 8	100.0	49.3	50.7	41.0	31.0	3.8	61.8	61.0
2008. 8	100.0	55.2	44.8	35.1	28.3	3.5	67.3	66.5
2009. 8	100.0	56.2	43.8	30.5	25.5	3.4	72.3	71.9
2010. 8	100.0	59.3	40.7	28.4	20.5	3.8	72.7	71.9
2011. 8	100.0	58.4	41.6	31.2	22.0	6.1	69.8	69.0
2012. 8	100.0	60.0	40.0	26.9	21.7	5.9	72.4	71.6
2013. 8	100.0	60.4	39.6	26.2	20.8	7.0	74.9	74.4
2007. 3	100.0	49.8	50.2	41.0	33.6	4.9	61.7	60.4
2008. 3	100.0	51.7	48.3	32.0	24.9	4.0	71.3	69.1
2009. 3	100.0	57.7	42.3	32.9	29.7	3.1	70.5	70.2
2010. 3	100.0	56.5	43.5	31.2	21.3	4.3	71.0	70.8
2011. 3	100.0	58.2	41.8	28.2	17.1	3.8	74.3	73.1
2012. 3	100.0	56.8	43.2	30.7	20.9	6.4	70.5	69.8
2013. 3	100.0	61.6	38.4	23.8	18.3	6.3	77.2	76.8
2014. 3	100.0	58.3	41.7	25.1	18.4	6.7	77.6	77.0

주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의 합은 100.0이며, 한시,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특수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임.

## IV. 금융보험업의 근로조건

이제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앞에서 보았듯이 금융보험업 근로자들 가운데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수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12>와 <표 13> 그리고 <표 14>를 보면 우리는 이러한 짐작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표 12>를 보면 임금근로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은 2014년 3월에 223.4만 원인데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12,536원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은 145.9만 원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260.1만 원의 56.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격차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근로시간의 차이에 기인하며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임금격차는 65.5%로 줄어든다.

<표 12> 근로조건(2014년 3월) : 임금근로자 전체

(단위: 만 원, 원, %)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시간당임금
전 체	223.4	41.7	12,536
정규직	260.1	44.0	14,100
비정규직	145.9	36.8	9,231
비정규직/정규직	56.1	83.7	65.5

<표 13> 근로조건(2014년 3월) : 금융보험업

(단위: 만 원, 원, %)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시간당임금
전 체	312.0	40.1	17,860
정규직	368.9	40.5	20,937
비정규직	232.6	39.5	13,562
비정규직/정규직	63.0	97.5	64.8

<표 14> 금융보험업의 임금근로 전체에 대한 상대 근로조건(2014년 3월)

(단위: %)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시간당임금
전 체	139.6	96.1	142.5
정규직	141.8	92.1	148.5
비정규직	159.4	107.3	146.9

이제 금융보험업의 근로조건을 보면, 이들의 월평균 임금이 312.0만 원으로서(표 13) 임금근로자 전체 월평균 임금보다 39.6% 더 많다(표 14). 시간당 임금으로 보더라도 금융보험업 종사자 임금이 임금근로자 전체의 경우보다 42.5% 많다.

한편 금융보험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232.6만 원으로 금융보험업 정규직 임금 368.9만 원의 63.0%를 차지하여 월평균 임금격차는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작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40.5시간과 39.5시간으로 별 차이가 없어 시간당 임금격차는 64.8%로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표 13).

##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 특성과 근로조건은 다른 산업들과 상당히 구별되는 모습을 보인다.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수는 2014년에 850천 명 정도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 정도에 불과하나, 최근 4개월 동안에는 취업자 수가 137천 명이나 줄어들 정도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성, 연령, 학력별, 그리고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수 분포에서도 금융보험업은 다른 산업들과 구별된다. 금융보험업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고, 젊은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용직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상용직과 임시직을 합하면 이 업종 종사자의 95%를 넘는다.

근로형태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산업 전체에 비해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시간 차이가 적어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근로형태에 따른 격차가 작다는 특징도 함께 존재한다. 산업 전체로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에 대한 상대임금은 월평균 임금에서 크고 시간당 임금에서 작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으로 파악한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금융보험업에서 다소 크게 나타난다.

근로형태에 따른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업의 임금은 전체 산업의 경우에 비해 40%가량 더 높다. 이 같은 산업 간 임금격차는 금융보험업 종사자들의 보다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도 있으나, 본 연구가 고려하지 못한 또 다른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금융부문의 고용불안은 경제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산업이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금융업의 취업자도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보험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향후에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연

령자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해 종사자의 경력이 증가할 때 생산성도 증가할 수 있는 인적자원 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개별 금융기업에 제기된 인사관리상의 도전이라 할 것이다. **KLI**

〈부표 1〉 취업자의 성별 분포

(단위 : 천 명)

	취업자 전체			금융보험업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004	13,193	9,364	22,557	364	374	738
2005	13,330	9,526	22,856	369	376	745
2006	13,444	9,706	23,151	381	404	786
2007	13,607	9,826	23,433	387	419	806
2008	13,703	9,874	23,577	407	414	821
2009	13,734	9,772	23,506	384	382	766
2010	13,915	9,914	23,829	416	391	808
2011	14,153	10,091	24,244	421	425	846
2012	14,387	10,294	24,681	403	438	842
2013	14,573	10,494	25,066	421	443	864
2014(1~7)	14,772	10,670	25,441	410	439	850

〈부표 2〉 취업자의 성별 분포 : 1~7월

(단위 : %)

	취업자 전체			금융보험업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004	58.6	41.4	100.0	48.9	51.1	100.0
2005	58.5	41.5	100.0	50.0	50.0	100.0
2006	58.1	41.9	100.0	49.3	50.7	100.0
2007	58.1	41.9	100.0	47.2	52.8	100.0
2008	58.1	41.9	100.0	49.7	50.3	100.0
2009	58.5	41.5	100.0	49.3	50.7	100.0
2010	58.4	41.6	100.0	51.4	48.6	100.0
2011	58.4	41.6	100.0	50.0	50.0	100.0
2012	58.3	41.7	100.0	48.2	51.8	100.0
2013	58.2	41.8	100.0	48.5	51.5	100.0
2014	58.1	41.9	100.0	48.3	51.7	100.0

〈부표 3〉 임금근로자 전체의 근로형태별 근로자 수

(단위: 천 명)

mini	임금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특수
2004. 8	14,584	9,190	5,394	3,597	2,491	1,072	1,948	711
2005. 8	14,968	9,486	5,482	3,614	2,728	1,044	1,907	633
2006. 8	15,351	9,894	5,457	3,626	2,722	1,135	1,933	617
2007. 8	15,882	10,180	5,703	3,546	2,531	1,201	2,208	635
2008. 8	16,103	10,658	5,445	3,288	2,365	1,229	2,137	595
2009. 8	16,479	10,725	5,754	3,507	2,815	1,426	2,283	637
2010. 8	17,048	11,362	5,685	3,281	2,494	1,620	2,289	590
2011. 8	17,510	11,515	5,994	3,442	2,668	1,702	2,427	614
2012. 8	17,734	11,823	5,911	3,403	2,714	1,826	2,286	545
2013. 8	18,240	12,295	5,946	3,431	2,761	1,883	2,215	545
2007. 3	15,731	9,958	5,773	3,642	2,614	1,232	2,244	643
2008. 3	15,993	10,356	5,638	3,249	2,293	1,301	2,330	601
2009. 3	16,076	10,702	5,373	3,179	2,560	1,316	2,165	632
2010. 3	16,617	11,119	5,498	3,202	2,389	1,525	2,178	589
2011. 3	17,065	11,294	5,771	3,370	2,465	1,532	2,311	579
2012. 3	17,421	11,612	5,809	3,394	2,554	1,701	2,260	584
2013. 3	17,743	12,011	5,732	3,331	2,594	1,757	2,208	557
2014. 3	18,397	12,486	5,911	3,401	2,588	1,917	2,150	551

〈부표 4〉 금융보험업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근로자 수

(단위: 천 명)

mini	임금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특수
2004. 8	687	385	302	141	102	18	180	177
2005. 8	690	369	321	135	116	14	199	197
2006. 8	734	356	379	166	126	23	224	221
2007. 8	744	367	378	155	117	14	233	231
2008. 8	774	427	346	122	98	12	233	230
2009. 8	715	401	313	96	80	11	227	225
2010. 8	780	463	317	90	65	12	230	228
2011. 8	826	483	343	107	75	21	240	237
2012. 8	799	479	319	86	69	19	231	229
2013. 8	848	513	336	88	70	23	251	250
2007. 3	737	367	370	152	124	18	228	223
2008. 3	787	407	380	121	95	15	271	263
2009. 3	735	424	311	102	92	10	219	218
2010. 3	771	436	336	105	72	14	238	238
2011. 3	800	466	335	95	57	13	249	245
2012. 3	827	470	357	110	75	23	252	249
2013. 3	808	498	310	74	57	20	239	238
2014. 3	817	476	341	85	63	23	264	263